

## 오직 믿음의 절대대가를 세운 로마서

###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창세기 3:1-6, 로마서 1:16-17

정운돈 목사님

\* **창3:1-6**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롬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준괴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비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획과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선교대회 주간이다. 제가 선교학 공부를 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선교가 뭔지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몰랐다. 선교학 교수님이 ‘만약 순교할 마음이 없어도 선교사가 되지만 음식 적응을 못하면 선교사를 못 한다’는 말만 기억난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게 없고 불수록 저분들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목회 말고 복지만 하려다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전도가 다’라는 답을 얻었다. 저는 여러 박사님,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를 받은 적 없다. 머리로 설교하는 사람들과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복음 모르고 전도도 못 한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는 성도를 만들면 문 닫는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어떻게 나의 현장에 실천할 지 금도일시대와 70현장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류목사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와 닿는다. 류목사님도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제 메시지 들으면 아무 재미가 없을 거라고 했다. 공부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부 잘 하는 법을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다 실천해야 하는 메시지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제대로 뭘 안 한다. 캠프도 안 한다. 금도일시대 뭘 안 한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저희는 10년 동안 복음소식 하고 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매일 전도했다. 요새 초등학교 램프들이 일어나서 친구초청하는 걸 보고 감사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캠페인커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런 친구들이 국회의원도 해야 한다. 지금부터 팀으로 국회의원, 총리, 장관,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교회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대가를 세운 사람이 필요하다. 왜 행복하지 않고 갈등할까? 나의 절대대가가 없어서 그렇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건축을 할 때도 이방 왕이 다 지원해주서 했고, 성막을 지을 때도 한 번도 빚지면서 하지 않았다. 지금 다 틀리게 건축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후대를 키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과 같은 인물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선교사님이 선교현장에 가면 그 아이를 위해 국가에서 그 현장에 선생님도 보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자녀 한두 명을 위해 선생님을 파송하고 학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들이 많다. 일들을 국가에서 했다. 오직 예수로 기도한다면 이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 세계화시키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예수 잘 믿고 선

교하는 게 방법이다. 왜 예배드리고 모일까? 왜 선교를 해야 할까?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류목사님이 어느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의사 한 분이 비웃었다. ‘복사님이 그 의사 분을 보며 ‘약 먹고 수술하면 의사 선생님은 안 죽겠네요.’ 한나가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한 번 태어난 것에는 심판이 있다고, 죄로 인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악하고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섭리와 계획대로 한 방법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녀 삼으시는 섭리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의문 있는 구절들을 다 적어서 직접 찾아봤다.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대답도 할 수 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도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불신앙하는 것도 지옥 같 이이다. 여러분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뱀이 사탄일까? 뱀은 여러분에게 정치로, 돈으로, 도박으로, 사탄의 통로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속인다. 날마다 복음으로 체질화되지 않으면 평생 사탄에게 쳐 맞는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다.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말씀을 주시고, 그분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아무나 믿는 믿음이 아니다. 믿을 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란다. 사람들은 믿지 못할 사람도 믿는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진리를 믿고 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는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변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참된 복음을 들으니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시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따라온다. 그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다. 삶과 모습이 거듭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제 다윗의 마음이고 솔로몬의 마음이다. 살인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했지만 나의 진심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국 전도자로 거듭났다. 그제 복음의 마음이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고생 좀 하실 것이다. 결론내지 않고 문제로 인해 헛갈린다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때리고 마귀도 때리고 세상도 고통을 준다. 그리스도도 빨리 결론내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란다. 할 게 너무 많다. 헛갈릴 시간이 없다.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로마서는 복음과 믿음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복음서이고 구원론을 정리한 조직신학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제가 서철원 박사님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하나도 복음을 모른다고 느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읽는다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제일 학벌 낮고 공부 못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친구들 절반 이상 사라졌다. 현장에서 전도 못 해보고 진정 제자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 다 닫아야 한다.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백 번 읽으라고 하더라. 틈틈이 밥 먹으면서 다 책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를 읽는데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고 느꼈다. 지금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키우지 못해서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② 또 로마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할례주의와 선민사상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도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③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러분은 착하지만 의롭지 않다. 창세기 1장 6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은 선악을 구별하기 원한다. 이게 율법주의다.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판단하는 게 사탄의 논이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잘못할수록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교회도 그래야 한다. 제가 정치인들에게 배웠다.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모든 걸 캐내지만 우리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눈이 열려서 선악을 구분하고 정죄한다. 우리 자신부터 크나 작나, 악하나 덜 악하나, 착하나 덜 착하나 아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남 칭찬하면 배 이파하고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을 시기한다. 잘나가면 죽이려고 한

다. 이런 현장에서 인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인간은 믿는 게 아니라 살리고 거듭나게 해야 하는 존재다. 복음이 없으면 다 사기, 살인, 악독이 가득한 마음이 된다.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는 믿음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자랑, 지식 자랑, 교회 자랑 하지 마라. 이게 다 우리 모습이다.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④ 로마서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인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다.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⑤ 로마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최종목적이다.

## 1.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은혜에 대한 중요한 요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첫 번째로 로마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절말씀이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당신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의다. 그 복음을 깨달은 만큼 의롭게 하신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도 선물이어서 자랑할 것 없다. 중언이 되어야 한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2) 로마서는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예배를 드리고 성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하라고 하는 건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실천하고 지키지를 못한다.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필요함을 깨닫는 게 목적이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십계명으로서 시작해서 613가지가 된다. 이걸 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죄를 알리는 것이다. 율법 중 하나라도 어겼다면 다 어긴 것이라 했다. 천국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믿으면 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완벽히 행하려는 것보다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다. 공짜다. 속량의 사전적 의미는 ‘노예의 몸값을 받고 놓아주어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가를 치루시고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4) 우리들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러나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나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나는 징계를 받아야 해요’라고 하지만 왕에게는 사면복권이 있다. 법적으로 취소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또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 하셨다. 왕 중의 왕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 왕이 사면복권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죄 있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법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러니 남을 절대 정죄하지 마라. 그 용서와 해방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5) 또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진노를 받아서 멸망 받고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복 받을 존재가 되었다. 마음껏 복을 받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다. 불신앙

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는 건 한 가지, 믿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역사하신다. 제일 큰 죄가 안 믿는 것이고, 사탄이 그걸 원한다. 예배드리며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게 불신앙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겨우 구원받지 말고 특급믿음을 가져라. 수준 낮은 믿음으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란다.

(6)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오직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의 절대대대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할머니가 영접하고 취소해 달라고 하더라. 영접하는 믿음과 삶의 주인이 되는 믿음은 다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되는, 그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설교만 듣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일어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7)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 주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임을 부르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6장처럼 정확하게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의 역사는 다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신다.

## 2.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다.

(1) 첫째로, 우선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진짜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런 빛된 전도자의 삶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깊은 목상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2)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던 24종류의 인물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다양한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었다. 1절에 자매 베뢰는 ‘보호자’로 교회와 전도자, 주의 종을 보호하는 사람이었다. 3절과 4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리는 ‘동역자’로, 5절의 에베네도와 8절 암블리아는 ‘사랑하는 자’, 6절의 마리아와 12절의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 7절의 안드르니고와 유니아는 ‘친척’, 10절의 아벨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23절의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식주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 건 헌신을 했던 중직자들이며 전도자들이었다. 우리들도 이들을 본받아야 하겠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대 망대는 성삼위, 보좌,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뜻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5력을 주시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뜯겨 뜯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오직 믿음과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237나라와 5전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의 원리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도전해야할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각자 주신 레마를 붙잡고 실천하며 도전하여 237과 5전 종족 살리고 모든 나의 현장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